

아담 스미스의 政治經濟學의 哲學的 基礎

朴 淳 成

아담 스미스의 政治經濟學은 경제행위에 대한 근대적 사유형태라고 보어지는 '경제주의'로부터 출발하여, '경제현상'으로서의 시장경제체제의 운동원리에 대한 실증주의적 과학체계를 세우려고 한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의 산신로서의 『國富論』은 실증주의적 경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자신이 지녔던 '도덕적 이상주의'와 '경제주의'라고 불리우는 경제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철학적 사고의 흔적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 『國富論』의 이러한 특성은 한편으로는 政治經濟學의 이론적, 철학적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미스의 『國富論』이 근대시민사회에 대한 사상사적 고전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스미스의 『道德感情論』과 『國富論』에서 전개된 두 가지 哲學的 사유체제와 정치경제학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는 학실사적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經濟思想의 두 形態와 아담 스미스의 經濟思想

인간의 經濟行爲와 사회의 경제현상에 관한 이론적 사고체계는 두 가지 형태의 사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먼저, '경제'를 하나의 '수단'으로만 파악하는 사상을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경제는 개개인 혹은 인간사회의 物質的 必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 사용되는(거대한 기계로서이거나, 혹은 사회제도로서이거나)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면, 형이상학과 성치(사상)에 있어서의 관념적 이상주의자인 플라톤은 이미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經濟的인 것, 나아가 모든 사회적, 물질적 삶은 인간 영혼의 해방을 위한 하나의 단순한 道具, 달리 말해 정치적, 철학적 合理性에 의해 구축되고 통제되어야만 하는 諸社會制度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다. 다른 하나의 사상에 의하면, 경제(현상), 특히 개개인의 경제적 행위는, 인간이 자신의 社會的 혹은 合理的 本性을 경험적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고유한 표현양식이다. 이미, 경제주의라 불리우는 近代市民社會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하면, 인간은 경제적 동물(homo oeconomicus)이라 정의될 뿐이다. 즉, 인간은 경제행위를 하는 한에서만 사회적이거나 合理的이라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¹⁾

(1) 위와 같은 두 사상은, 그들의 역사적 발생상황에서 갈라본다면, 두 개의 다른 문제의식을 지니

아래에서 우리는 위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經濟思想이 스미스의 두 주요 저서인 『道德感情論』(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과 『國富論』(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Wealth of Nations) 속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혀보려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원상적으로 양립될 수 없어 보이는 두 사상이 스미스의 두 저서 속에서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隱喻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은유가 어떻게 서로 다른 양 극단의 두 思考體系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당연히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가 형이상학적 신념에 호소하면서 타인을 선득하려고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은유를 보다 비판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철저한 分析的 解釋이 요구되기 때문이다(第2節).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道德感情論』과 『國富論』에서 전개된 서로 다른 두 經濟思想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 혹은 斷切이 이 두 저서의 지자 자신, 즉 스미스에 의해서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形而上學的' 은유가 이론적 분석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런 측면에 관한 고찰은 생략하고 다만 스미스의 經濟思想 속에는 이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모호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다 철저하게 밝혀보려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스미스 經濟思想의 모호성은 역설적으로 강제현상에 대한 새로운 科學理論이 성장하기에 적당한 풍요로운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명제를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經濟主義的 分析이 『國富論』에서 지배적이지만, 『國富論』에서 스미스가 행한 교환, 교환가치 및 노동분업에 관한 이론적 분석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경제에 관한 두 가지 형태의 사상의 혼합물이다. (2) 그러나 『國富論』에서 발견되는, 서로 다른 두 사상의 혼합물로서의 經濟理論은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진터 새로운 概念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새 개념으로부터 政治經濟學 내지는 '경제에 대한 근대과학'이 발생하고 성립하였다. 사회사상적으로 보아 매우 식기식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미스 政治經濟學의 학신사적 특징을 요약해 보여주는 위와 같은 두 명제에 대한 내용적, 분석적 논증이 이 小考의 후반부를 구성한 것

그 있다. 그러나 理想主義는 상업의 부의 축적이 사회질서와 기민의 도덕적 관습에 끼치는 파괴적 영향을 비판하고, 나아가 經濟의 의미를 인후의 식성이나 이데이의 절대적 가치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評價低下라고 한다. 한편, 경제 및 상업에 대한 古代的인 觀念은, 상인질서의 가능성과 그 유익성에 근거해 상업의 도덕성의 인립장은 주장되지만, 도덕론적 상업비판에 대한 허위의 감격적이라도 經濟질서증주의적인 대응으로서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립적인 두 개념은 파악할 수 있다. 비도덕적 상업과 순회적 상업(le doux commerce)

이다(第3節).

2. 『國富論』과 『道德感情論』에 나타난 두 가지 經濟思想

2.1. 經濟主義로부터의 政治經濟學의 發展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환자이다(『國富論』 I. ii).⁽²⁾ 아마도, 인간 本性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실제로는 상업행위라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유도된 ‘經驗的’ 명제인지도 모른다.⁽³⁾ 따라서, 이 명제를 다음과 같이, 보다 확고하게 歷史主義的이고 결정주의적인 명제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업사회의 모든 개개인은 자신의 실속과 사적인 안정성만을 계산하고 추구하는 상인일 뿐이다. 그런데 스미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명제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의해 보충되고 완결된다. 상인으로서의 개인이 행하는 私的인 經濟活動은 보이지 않는 손의 神의 인도에 의해 사회(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나아가, 이 명제는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商業社會는 경제행위자 개개인의 도덕적 부담과 책임을 감면해 주며, 또한 (사회)자체의 경제기능의 效率性을 확신할 수 있다[Dumont(1976, pp. 83~84) 참조].

‘經濟的 自由主義’라고 불리울 수 있는 위와 같은 스미스의 경제사상에 의해 그려진 상업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스미스가 『國富論』의 제 4편에서 重商主義的 정치경제(학) 체계를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한 사회의 年間收入은 그 사회의 산업의 인간 총생산물의 交換價値와 언제나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오히려 그 교환가치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자본을 국내산업의 지원에 사용하고, 또한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價値를 갖도록 산업을 이끌어 감으로써, 각 개인은 사회의 연간수입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있다.⁽⁴⁾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公共의 利益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그가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 해외산업의 지원보다 國內産業의 지원을 선호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의도할 뿐이고, 국내산업을 그 생산물이 최대의 價値를 갖도록 이끌어 나감으로써 그는 오

(2) 『國富論』과 『道德感情論』에 대한 인용체계는 최근 흔히 사용되는 방식을 따랐다. 즉 『國富論』 I. ii. 3은 제 1편 제 2장 3번째 구절을 의미하고, 『道德感情論』 I. ii. 3. 4는 제 1부 제 2절 제 3장 4번째 구절을 의미한다.

(3) 과학에 있어서의 ‘경험적 명제’와 ‘실험적 명제’ 간의 구분의 가능성과 근거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4) 이러한 주장은, 스미스의 논리에 따르면, 重商主義的 獨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옳바르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은 자신의 고유한 내적 논리에 의해 독점을 야기하지 않는가? 혹은, 경쟁이란 독점을 위한 영원한 진쟁상태이지 않는가?

직 자신의 利得만을 의도할 뿐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많은 경우에 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종종 그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자신이 실지로 社會의 利益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그것을 증진시킨다(『國富論』Ⅳ. ii. 9).⁽⁵⁾

위 인용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命題로 구성된 논증형태를 띠고 있다. (1) 우리가 ‘한 사회의 富에 관한 산술모형’이라고 부르는 命題. 이에 의하면, 개별 사회의 所得은 모든 사회적 생산물의 交換價値, 즉 임금, 이윤, 지대라 불리우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세 가지 원초적 所得의 합과 일치한다(『國富論』Ⅰ. vi. 17). (2) 우리가 ‘인간의 利己의 木性的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명제. 이에 의하면, 개개인인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즉, 인간은 私的인 이익동기에 의해서만 행동한다. 이 행동을 흔히 合理的 經濟行爲라 부른다. (3) 우리가 ‘社會의 形而上學’이라고 부르는 명제.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구성원들의 개별적 행동들의 ‘조화로운’ 사회적 결합(social coordination)과 그것의 ‘效率的’ 運動을 보상한다. 이상과 같이 논증의 구성이 조야하고 또한 그 유효성이 불확실시원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의 발췌문은, ‘경제주의’라 불리우는, 경제에 관한 하나의 매우 근본적인 思想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경제사상으로부터 政治經濟學, 즉 ‘경제에 관한 과학’이 점차 발전해 나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商業社會에 대한 경제이론은 자신의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마련이다. 먼저, ‘경제적인 것’이라 불리우는 범주가 어타의 諸社會關係를 침투한다. 일견, “富는 곧 권력이다”라는 홉스의 명제를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제한규정하고 수정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富의 소유가 그 소유자에게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진하여 주는 권력의 증류는 購買能力이다. 이는 곧 모든 타인의 노동, 즉 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한다”(『國富論』Ⅰ. v. 3). 하지만, 購買力, 즉 경제적 힘과 정치사회적 권력 사이의 이러한 이론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知識社會學的 思考에 이끌린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대한 주장을 내세운다. 첫째, 諸社會階級の 정치적, 사회적 행위는 사회갈등 속에서 그들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재산)에 의해 결정된다(『國富論』Ⅰ. xi. p). 둘째, 지금까지의 여러 다른 경제정책 및 政治經濟學 체계는 특정 계급의 偏見과 私益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國富論』 서문 8).⁽⁶⁾

다음으로, 보다 중요하게는,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은 인간사회의 경제이론으로서까지 자

(5) 『國富論』의 국문은 金秀行 譯(1992, 上, p. 434)로부터 번역되었다.

(6) 여기서 우리는, 상업사회 속에서의 政治的 行爲에 대한 스미스의 이론을 둘러싸고 하나의 문헌

신을 확대한다. 다음의 인용구를 보자.

필요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물의 秩序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촉진된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나 都市는 주변지역의 개량, 경작이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적어도 모든 주변지역이 완전하게 경작되고 개량될 때까지는 成長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일한 또는 거의 동일한 이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을 제조업이나 외국무역보다는 토지의 개량, 경작에 투자할 것이다. 자신의 자본을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자본을 자신의 감시, 통제하에 둘 수 있고, 그의 재산은 貿易業者의 그것보다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적다[『國富論』 III. i. 3, 金秀行 譯(1992, 上, p. 364)].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 하는 자연스러운 努力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쓸 도록 허용되면 너무나 강력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런 도움없이 그것만으로도 사회에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人間이 만든 法の 어려움에 의해 그것의 작동을 방해하는 수많은 부적합한 방해물들 [이것들은 항상 다소 그것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것의 안전성을 감소시킨다]을 극복할 수 있다[『國富論』 IV. v. b. 43, 金秀行 譯(1992, 下, pp. 39~40)].

(마지막으로 셋째), 商業과 製造業은 이전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상태와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종속상태에서 살았던 시골 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혼란한 정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점차로 도입한다. 이 점은 지금까지 거의 관찰되지 않은 바이지만 상업과 제조업의 효과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國富論』 III. iv. 4, 金秀行 譯(1992, 上, p. 392)].⁽⁷⁾

위와 같은 스미스의 ‘역사에 대한 經濟理論’에 의하면, 인간문명의 발전사는 인간 經濟行爲의 확장으로 서술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사는 이제는 ‘경제인에 대한 과학’(science of homo oeconomicus)에 의해 설명되고 또한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역사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극이하게도 經濟人의 合理性을 그들의 자연적, 초역사적 本性, 즉 욕구와 선호도로부터 연역해 낼 뿐만 아니라, 經濟的 合理性의 역사적 형태를 이론적, 선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國富論』의 경제사이론은, ‘사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두자. 먼저, G.D. Stigler에 의하면, 스미스에게는 정치권위에 대한 일관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Stigler(1971)]. 다른 한편, G.M. Anderson에 의하면, 스미스에게는 인종의 ‘경제(학)적 제국주의’(economic imperialism), 즉 經濟法則에 의해 다른 모든 政治社會的 行爲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Anderson(1989)]. 이 논쟁은 지식사회학적 혹은 경제결정주의적 정치이론과 도덕철학 혹은 사회윤리학적 정치이론 사이에 동요하는 스미스 社會思想의 모호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다른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자.

(7) 스미스 경제발전론의 경제적 맥락에서 이 문장이 가지는 이론적 의미는 매우 애매모호하다. Cropsy(1957)는 스미스의 自由主義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문장을 확대해석하여 사용했다.

들의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 경향'이 서로 어울려 작동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단 하나의 과학이론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점 역시 여기에서 지적해 두어야겠다.

이제, 과학적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世界觀으로서의 경제이데올로기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지배하게 된다. 달리 말해 과학적 경제이론의 이데올로기화 過程을 통해 '경제적인 것' 혹은 경제는 사회 속에서 독립되고 일관된 하나의 영역(혹은 場)으로 등장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人間歷史를 통하여 사회의 다른 제영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된다.

2.2.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隱喻의 두 가지 意味

經濟主義라고 불릴 수 있는, 스미스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國富論』보다 17년 앞서 출판된 『道德感情論』 속에서도 이미 제시된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은유가 『國富論』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인상적인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근면한 사업을 일으키고 계속하게끔 하는 것은 바로 (自然이 人間에게 가하는) 이러한 환상이다. 이러한 환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빈지 낭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도시와 나라를 세우고, 인간의 삶을 고상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모든 과학과 예술을 만들고 개선하도록 한다.…… 土地의 生産物은 언제나 그것이 부양할 수 있는 거의 동일한 수의 거주자들을 부양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거의 조금도 더 소비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만의 편의만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용하는 수 천명의 사람들의 勞動으로부터 그들이 얻어서 달성하려는 유일한 目的이 비록 자기 자신들의 헛되고 한없는 욕망의 만족이라고 하더라도, 부자들은 자신들이 이룬 모든 개량과 결과로부터 나오는 生産物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만일 토지가 지상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균등하게 分配되었다면 이루어졌을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生必需品을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의도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種(인류)이 증식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神의 섭리가 토지를 소수의 영주들에게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는 결코 이러한 (불균등한) 分配의 밖에 떨어지 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잊거나 망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神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다. 人生의 진정한 행복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은 결코 그들을 능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신체의 안락과 마음의 평온에 있어서, 모든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다. 대로변에서 햇볕을 쬐는 거지조차 왕이 그토록 찾아 싸우는 안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道德感情論』 IV. i. 10).

그러나 위의 인용문을 보다 철저히 읽어보면 두 개의 시로 다른 사고형태, 즉 實證的 형태와 道德的 혹은 가치규범적 형태가 서로 맞물리거나 겹쳐있다는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道德感情論』(IV. i. 10)과 『國富論』(IV. ii. 9)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라는 은유의 두 가지 용법 사이의 差異點이 부각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다음 두 가지 側面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經濟行爲의 動機에 관한 면, (2)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隱喻의 이론적 目的에 관한 면.⁽⁸⁾

『道德感情論』과 『國富論』의 두 은유 사이의 差異點을 보다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아래에서 두 개의 표를 만들어 보자.

〈表 1〉 經濟行爲의 動機

	『道德感情論』	『國富論』
實證的 側面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慾望의 원리 ⁽⁹⁾	경제인의 合理性 즉, 私的 利益(안진, 이득)
規範的 側面	자기 환상	의도되지 않은 社會的 利益 ⁽¹⁰⁾

〈表 2〉 隱喻의 理論的 目的

	『道德感情論』	『國富論』
實證的 側面	기본적인 욕구대상물의 ‘거의 완벽한’ 均等 配分	상업경제의 이상적, 효과적 均衡 ⁽¹¹⁾
規範的 側面	實際的 행복, 實際的 도덕성	經濟的 自由의 이론적 방어

두 표에 관하여 약간의 설명을 첨부하자. 『道德感情論』에서 스미스는 인간의 經濟行爲가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욕망의 원리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道德哲學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자기환상이라고 단정한다. 이에 반해, 『國富論』에서는 경제인들이 자신들의 합리적 이익추구에 근거해서 행위하며, 나아가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는 의도되지 않은 社會的 利益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道德感情論』의 보이지 않는 손은 분배의 自然的 秩序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개인들에게 실제적, 도덕적 행복에 만 보다 전념하라고 가르친다. 반면, 『國富論』의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인의 합리성에 기

(8) 여기서 우리는 은유의 이데올로기적 면은 적절 다루지 않겠다. 하지만, 사회이론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國富論』의 IV.ii.9와 『道德感情論』의 IV.1.10은 서로 비교하거나, 『國富論』草稿(ED)와 『國富論』의 시문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9) 『道德感情論』 I.iii.2.1을 참조하라.

(10) 『國富論』의 보이지 않는 손의 심리는 맨더빌의 문법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미스와 맨디빌의 차이는 도덕철학의 영역에서 나타난다. 스미스는 도덕론자의 후예로서 실제론적 도덕성을 믿지만, 자유주의적 수필가이고 인류학자인 맨더빌은 도덕성이란 개념을 부정한다.

(11) 여기에서 『道德感情論』의 현대편집자들의 다음과 같은 주를 인용해두자. “두 곳에서 모두(『道德感情論』 IV.1.10과 『國富論』 IV.ii.9) 스미스는, 무의도적으로 추진된 목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차이가 있으니, 『道德感情論』의 문장은 행복을 위한 수단의 분배에 관해 언급하지만, 『國富論』의 문장은 그것의 극대화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道德感情論』 p.184, 주 7).

초한 상업경제의 효율적 均衡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옹호한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에 관한 우리의 해석은 다소 단순화시켜 본다면, 『道德感情論』과 『國富論』 사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道德感情論』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은유가 ‘사람들의 이기심과 자인적 탐욕에 의해 지배받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도 도덕적 개인의 (초원칙) 노력에 의해 실제적 도덕감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國富論』에서는, 은유가 ‘經濟的 合理性에 의거한 개별 경제인들의 경제행위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므로, 이들의 經濟的 自由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해석은, 독일의 스미스 비판자들이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 문제를 제기하게 될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아담 스미스 문제에 의하면, 『道德感情論』에서 전개된 이타적 체계라고 불리는 도덕철학과 『國富論』에서 전개된 유물론적, 즉 이기적 체계라고 불리는 政治經濟學 사이에는 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설정 은, 독일 비판자들이 도덕적 德目과 경제적 合理性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적어도 ‘이론적 담론’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파악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道德感情論』(IV. 1. 10)과 『國富論』(IV. ii. 9)을 전성으로 읽은 이들은 두 저서 사이의 이론적 간격을 무시하고 마는 바,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의 두 가지 사용법 사이에는 닮은꼴 類似性이 존재한다. 즉, 개인적 행위들간의 사회적 결합이 두 저서에서 동일한 구조형태에 의해 비유되어 나타난다. 둘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은유의 形而上學的 기초 내지는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너무나 강하여, 그 속에 담긴 이론적 내용이 대부분의 스미스 해석자들의 의심이나 분석욕망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분석정신을 그냥 스쳐지나가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스미스 해석자들은, 스미스의 사회사상의 주목거은 자연주의적 人間心理學에 기초하여 이기적 개인들의 사회적 結合理論을 세우는 데 있다고 본으로써, 아담 스미스 문제를 단지 擬似問題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위의 논의는 자신의 사회이론의 내적 갈등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침묵을 역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3. 經濟哲學의 觀點에서 바라본 『國富論』과 『道德感情論』의 差異點

결국,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道德感情論』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은유가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입장에 매우 근접하는 스미스 자신의 (신스토아파적인) 경제사상에 기인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게다가, 스미스 자신이 『道德感情論』 속에서 經濟行爲를 단지 자기기만(self-deccit)의 건피일 뿐이라고 단언할 때, 스미스의 입장은 플라톤적 이상주의보다 더

극단적이라 보여진다. 이에 반해, 『國富論』의 정치경제학은 경제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의 경제현상에 대하여 하나의 科學理論體系를 세우려고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더 지적해두자. 첫째, 『道德感情論』은 열정(passions)으로서의, 부와 권력에 대한 추구 즉, 야망(ambitions)이 사회적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道德的 자기기만은 자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社會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자기기만의 구체적 내용은 인간의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道德感情論』 I. iii. 1~2를 보라). 따라서, 도덕적이기 위해, 인간은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한편, 『國富論』에서는 인간의 이기적 행위가 자신의 삶의 조건을 ‘물질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道德感情論』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은유는 스미스 사회사상 밑에 깔려있는 ‘사회에 대한 형이상학’의 존재를 부각시키지만, 『國富論』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은유는 스미스 政治經濟學 이론의 논증거 곤란을 드러나 보이게 한다.⁽¹²⁾ 다시 말해, 『道德感情論』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도덕적 자기실현을 보장해 주는 神의 섭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덕이론의 (경험적) ‘표상’인 양 자신을 나타낼 때, 『國富論』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적 경제인의 개별적 경제행위간의 사회적 조화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政治經濟學의 이론적 곤란을 수사학적 설득법으로 얼버무리기 위한 ‘思辨的 人工物’로서 등장한다.

3. 『國富論』에서 展開된 經濟理論의 哲學的 背景

3.1. 分析의 主案點

政治經濟學의 보이지 않는 손과 도덕철학의 보이지 않는 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명확히 밝힌 지금,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스미스의 社會經濟思想의 전체계 속에서 이론적 곤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를 검토해 보자. 다시 말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려 한다. 도덕적 理想主義와 經濟主義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사상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의 사상 속에는 한편으로는 이상주의적 경향이 끝까지 남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 형태의 思想을 서로 조화 결집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된다. 이는 곧 고전과 정치경제학의 시조라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정치경제학 대작인 『國富論』을 통해 전개한 經濟思想과 政治經濟理論의 모호한 일 측면을 보여

(12) Arrow and Hahn(1971)의 서문을 참조하라.

주는 일에 다름아니다.

3. 2. 아담 스미스 經濟思想에 대한 單純主義的 解釋

『國富論』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상당히 복잡한 방향으로 우리의 분석을 물고 갈 수 있다.

수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분업은, 원래 그것이 낳는 일반적 풍요를 예상해 의도한 인간 지혜의 결과는 아니다. 분업은 그와 같은 폭넓은 效用을 예상하지 못한 인간성의 어떤 성향으로부터——비록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긴 하지만——필연적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 성향이던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이다(『國富論』 I. II. 1, 金秀行 譯(1992, 上, p. 21)).

하지만 이 문장을 단순하게 해석함으로써, 스미스의 전반적 經濟思想 및 理論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경향 또한 널리 퍼져 있다.

(겉보기에) 이 글은 하나의 일관된 경제사상을 예견해 보여주고 있는 바, 바로 이 사상으로부터 정치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유도되고 구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交換은 人間本性으로부터 자연적으로 기인한다. 즉, 인간은 交換的 동물이라 정의된다. 교환과 정치경제학에 의해 교환이 네 가지 주요 경제행위의 하나라고 정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구절의 주요 관념은 人間本性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 정의를 가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간이 교환적 동물인 한에서, 인간은 經濟人이다.

그런데 스미스에 의하면 분업은 경제인의 자연적 경향으로서의 교환본성의 필연적 결과이다. 비록 인간이 자신의 木性을 지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제행위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한다. 첫째, 생산과정의 조직자로서의 生産的 人間은 분업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간다. 스미스는 이러한 생산적 인간이 자본주의적 商品經濟의 초기에 등장할 때 뉴팩치 마스터에 의해 구현되었다고 본다. 특히 그는 매뉴팩처 마스터와 賃金勞動者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문제는 내버려둔 채, 『國富論』(I. i)에서 분업의 기능적 강점을 단순히 순수한 經濟的 合理性, 즉 생산성만으로 설명하고 정의한다. 둘째, 交換法則은 생산비라는 측면에서 두 생산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교환법칙은 이윤증가를 위한 생산비 감소를 강요하게 되고, 따라서 더욱 分業의 合理化를 촉진하게 된다. 결국, 인간본성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 교환경향은 분업을 통해 상업사회라는 형태로 실제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¹³⁾

3. 3. 『國富論』에서 展開된 세 가지 經濟理論의 解釋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해석이 전개하는 논의와 그 결론의 지나친 單純性을 아래에서 드러

(13) Dumont(1976)의 스미스 가치론 해석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루어져 있다

내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분석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1) 인간의 자연적 交換本性的의 理論的의 의미, (2) 價値論의 구체적 內容, (3) 分業에 관한 철학적, 사회학적 관념.

3.3.1. 交換本性的의 理論的의 意味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지점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교환 본성은 결코 ‘경제인의 고유한 본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즉, 經濟人이란 개념은 ‘교환적’ 人間本性에 대한 기초적이고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法律學講義』속에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交換傾向이 근거하고 있는 인간심리의 원칙을 탐구해 들어가 보면, 그것은 분명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득하려고 하는 자연적 경향임에 틀림없을 것이다(『法律學講義』(A) vi. 56).⁽¹⁴⁾

둘째, 비록 人間本性으로부터 교환이 기인한다 하더라도, 교환의 일반화, 즉 상업사회의 역사적 성립은 몇몇 특수한 歷史的의 條件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 자신도 이미 『國富論』(I. ii. 3)에서 개인의 잉여생산물을 타인의 잉여물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교환의 습관화와 사회적 확실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점은 시장경제의 社會的의 條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다시 말해, 개인들간의 일반화된 교환은 일종의 사회적 제도, 즉 사회와 동일시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商業社會란 개인들간의 교환이 일반적으로 制度化되는 것, 즉 시장 자체를 의미한다. 그 결과, 인간본성(즉 교환 경향)과 그 실현으로서의 사회제도(즉 상업사회)간에는 단순한 원인-결과 관계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¹⁵⁾

위의 첫번째 지적을, 스미스가 서로 다른 도덕철학체계들을 비교하여 다루는 『道德感情論』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의 사상과 관련시켜서 보다 철저히 분석해보자. ‘道德的義務’의 중세 도학자적(casuistic) 개념을 비판검토하고, 또한 ‘眞理性的의 法則’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개한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들 믿는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지도

(14) 계속해서 문장을 인용해 보자: “우리에게 매우 평범하고 단순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1 실령을 제공한다는 행위는 실제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리저리한 행동을 해라고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의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이 그들에게 아무런 중요성이 없을 때조차도, 언제나 타인에게 다른 의견을 가지라고 설득하려고 한다.”

(15) 결국, 앞서서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自然的 交換傾向’이라는 개념은 상업사회라는 역사적 현실로부터 유도된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인간관인 뿐이다.

자이고 지휘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어느 정도의 尊敬心을 갖고 바라본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인간됨에 따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칭찬받기를 바라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지도되고 지휘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나 지휘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道德感情論』 VII. iv. 24).

신뢰받으려는 欲望, 설득하려는 욕망,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지휘하려는 欲望은 우리의 모든 자연적 욕망 가운데 가장 강한 것들 중의 하나라 보여진다. 아마도 바로 이것이 인간의 특징적 能力이라 할 수 있는 말하는 능력이 기초하고 있는 본능일 것이다. 다른 어떤 동물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다른 동물에게서 자기 동료의 판단과 行爲를 지도하고 지휘하려는 어떠한 欲望도 발견하지 못한다. 야망, 즉 실질적 우위성 혹은 지도와 지휘에 대한 욕망은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말하는 것은 이러한 質的 優位性에의 야망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행위를 지도하고 이끌려고 하는 야망의 가장 중대한 도구이다(『道德感情論』 VII. iv. 25).

여기에서 보면, 交換傾向이란 결국 인간의 社會的 本性的 다양한 표현형태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인간의 사회적 열정과 욕망, 즉 야망과 지배욕이 교환경향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상업사회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비교적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諸社會들 중의 한 가지 형태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교환자로서의 개개인들이 교환과 분업이라는 經濟行爲를 통하여 ‘보편적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표현하고 실현해 보이는 상업사회라는 일반화된 分業・交換體系로서의 사회제도는 여러 가능한 사회제도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스미스가 『國富論』에서 교환경향의 기원(또는 자연적 성격)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을 행하기를 스스로 억제한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人間本性에 관한 경제적 관념을 확대해석하는 데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는 자연적 교환경향에 내재하는 비경제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까지, 『國富論』에서 연구의 영역을 (고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⁶⁾ 그런데, 경제인의 행위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이 이처럼 연구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미로소 近代市民社會에 대한 새로운 인식형태, 즉 새로운 과학으로 발생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명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즉, 政治經濟學은, 자신의 철학적 기초뿐만 아니라 경제사상의 근원을 철학적 압입 속에 내미리듬으로써, 새로운 科學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6) 『國富論』(I. ii. 2)의 아래 귀절을 보라. “이 성향이 인간성에 있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本能들 중의 하나인지, 또는 이성과 언어의 속성에서 나오는 必然的인 결과인지[이것이 보다 그럴듯하다]는 우리의 지금의 연구주제는 아니다. 이 성향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기타 동물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3.3.2. 價値論의 具體的 內容

『國富論』(I, vi, 1)에서 交換의 法則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비용의 관점에서 한 두 생산자 간의 관계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교환법칙에 대한 스미스의 이러한 개념화는 두 가지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위의 주장에 이어지 나오는 『國富論』의 이론적 분석에서, 스미스는 경제사회에 대한 總體的 觀點으로부터 개별상품간의 교환가치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다. 그에 의하면, 交換法則은 생산자 개인들간의 비용관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근대적 상업경제의 총체적인 사회질서에 의해 설정된다. 그런데 스미스에 의하면 이러한 商業社會는 기본적으로 세 社會階級, 즉 임금노동자, 자본가, 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사회의 경제기 운동과 재생산은 지배하는 경제법칙의 관점에서 보아 결정적인 要素이다. 즉, 개개의 상품의 交換價値는 세 사회계급의 인초기 수입, 즉 임금, 이윤, 지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스미스에 의하면, 토지와 자본재의 私的 所有를 사회적 존재기반으로 한 지주계급과 자본계급은 地代와 利潤이라는 명목하에 생산물의 교환가치의 일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취득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의된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총체적 관점에 의해 세워진 사회계급간의 分配秩序는 경제행위자들간의 교환법칙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초로 나타난다. 아울러, 스미스 가치이론의 세 주요개념인 ‘自然價格,’ ‘有效需要,’ ‘市場價格의 자인가격이라는 중심으로의 회귀경향’은 교환법칙에 관한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는 잘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자.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스미스 가치론의 곤란은 이중적이다. 첫째, 분석방법의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혹은 부정합성(incoherence)이 그것이고, 둘째, 교환과 분배라는 ‘經濟現象’과 私的 所有와 사회관계의 再生産이라는 개인들간의 ‘政治社會的 關係’ 간의 불명확한 관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번째 이론적 곤란으로부터 스미스의 (독립된 생산자의) 생산비용에 의거한 가치론에 대한 두번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는 곧 經濟法則과 道德性간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道德感情論』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인용해 보자.

(그러나) 비록 필요한 도움이 그러한 자비롭고 미이გი적인 동기로부터 제공되지 않더라도, 즉 社會의 여러 구성원 사이에 어떤 相互愛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회는 덜 행복하고 덜 유쾌하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분해되어 버리지는 않는다. 사회는 여러 사람들간에 마치 여러 상인들간에서와 마찬가지로, 相互愛 없이 사회 자체의 有用性에 대한 의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사회 속의 어느 누구가 어떠한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혹은 타인에 대한 친절에 입매이지 않더라도, 그 사회는 동의를 가치평가에 의해 호의를 상업적으로 交換함으로써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道德感情論』 II. ii. 3. 2).

그런데 비록 效用의 原理가 상업사회의 내적 일체성의 기초로서 작용한다 하더라도, 상인들간의 합의된 가치평가, 즉 공정가격의 문제는 스미스에게는 도덕판단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소극적) 의미를 지닌 사회적 덕목으로서의 정의란 최종적 분석에 의하면 결국 인간의 道德能力(moral faculty) 혹은 동감의 원리(the principle of sympathy)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록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정의 즉 공정가격에 대한 판단은, 장점과 단점(혹은 공로와 과실)이라는 가치에 의거해서 行爲와 動機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¹⁷⁾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스미스에게 있어서 交換法則의 문제는 두 가지 상반된 理論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적 경제체제와 분배질서라는 두 개념에 근본적으로 의거하여 상품들간의 교환가치이론을 세운다. 다른 하나는, 교환자로서의 개인들간의 道德的 불평부당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상인들간의 공정한 가치평가기준을 세운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경제인의 政治經濟學이 교환법칙을 위해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이론이 아니라, 교환자로서의 개인들간의 ‘實證主義的’ 合理性(즉, 비용과 효용 사이의 합리적 계산에 의거한 개인들간의 합의)과 익명적인 市場機構의 운동원리에 기초한 상품교환법칙이다.⁽¹⁸⁾

3.3.3. 分業理論에 관한 哲學的·社會學的 觀念

의심할 바 없이, 스미스는 分業이 교환자로서의 인간, 즉 경제인의 가장 핵심적 본성의 필연적 결과라 보았다. 더우기 분업이란 生産力 增加 등과 같은 인간지대로서는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익들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史的唯物論의 한 형태로서의 스미스의 經濟理論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신명하고, 경제인의 본성 그 자체로부터 일어난 이러한 인류 문명의 밝은 미래를 그리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國富論』 속에는 분업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도 함께 전개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수많은 社會思想家들이 이미 이러한 스미스의 비판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¹⁹⁾

分業의 발전에 따라, 노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즉 국민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몇 가지의 단순한 작업[종종 하나 또는 두 가지 작업]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

(17) 『道德感情論』 II 참조, IV에서 발견되는 效用的主義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도 참조. 質的 판단의 量的 판단으로의 전환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사실, 『道德感情論』에서 건넌 ‘저경성’과 ‘공로’라는 두 개념에 근거한 도덕판단이론은 판단의 이러한 복잡한 측면, 즉 ‘商人의 價値評價’라는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18) 이에 의하면, 시장기구란 결국 개인들의 經濟的 合理性이 조화롭게 결합되고 실현되는 매개인 역할 뿐이다.

(19) 우리는 먼저 Marx, Durkheim, Weber 등을 들 수 있다 [Giddens(1971) 참조] 아담 스미스의 분업과 관련해서는 West(1964)와 Rosenberg(1965)를 보라

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理解力은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의해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일생을 몇 가지 단순한 직업[그것의 결과불도 항상 같거나 거의 같다]에 소비하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어더움을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 그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그의 創造力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자연히 그러한 努力을 하는 습관을 잃게 되고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둔해지고 무지해진다. 정신이 마비상태에 빠져 그는 어떠한 이성적인 대화를 즐기거나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고상하고 부드러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私的 생활의 일상적 의무의 대다수에 관해 전혀 판단할 수 없으며, [그를 그렇지 않게 만들려는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그는 전쟁시에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도 없다.…… 발달한 모든 문명사회에서는 정부의 방지노력이 없는 한, 노동인민[즉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된다[『國富論』 V. i. f. 50, 金秀行 譯(1992, 下, pp. 272~273)].

스미스의 이 지적은 흔히 經濟主義 혹은 생산주의라 불리우는 세계관이 제시하는 이상적 論理展開의 허상을 깨뜨리고 있다. 다른 한편, 경제인이라는 인격화 이론적 개념은 이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철학적 의미부여에 의해 김자기 규제받고 一[性을 위협받게 된다.

이처럼 人間에 대한 문화적이고 가치규범적인 개념에 근거한 사회학적 비판이 일단 제시된 다음, 分業은 지금까지 누리왔던 특권적 성격을 지킬 수 없다. 즉, 분업은 더 이상 人間本性의 자연적 교환경향으로부터 필연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결과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分業은 物質의 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일종의 사회적 기계’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기계’로서의 分業의 성질을 소기계, 즉 소규모의 핀 공장 수준의 工場制的 分業에 대한 기능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설명하려는 이론이 곧 『國富論』의 정치경제학이다(『國富論』 I. 1. 3). 이러한 『國富論』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업의 핵심적 성질은 오히려 『道德感情論』의 아래와 같은 구절에 의하여 보다 잘 파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동일한 원칙, 즉 체계에 대한 (위와 같은) 동일한 사랑, 질서와 기술 및 장치고안에 대한 (위의 같은) 동일한 관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사회)제도들을 판단하는 데 종종 사용된다(『道德感情論』 IV. 1. 11).

사실, 『國富論』에서 발견된 分業에 대한 긍정적이고 실증적인 이론은 스미스 자신에 의해 이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첫째, 『國富論』에서 전개된 사회학적 비판은 기계적 분업과 산업발전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폐해를 문제시 삼고 있다. 둘째, 理想主義的 道德哲學에 근거한 세계관은 사회적 경제(체계) 혹은 사회적 분업을 단지 능률적인 대기제로만 파악하며, 따라서 이 기계의 미적, 기능적 완벽화는 인류의 道德的 目的 혹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한다.⁽²⁰⁾ (나이가 스미스의 도덕적 이상주의는, 진정한 행복이란 불

(20) 공공의 복리란 개념은 스미스의 ‘역사에 대한 經濟理論’의 이념적 목표 내지는 도덕적 낙목이

적 중요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까지 말하지 않는가?) 이러한 이중적 위협을 피하고, 자신의 실증적 분업이론의 一貫性을 유지하기 위해, 스미스는 『國富論』의 이론적 부분에서 단지 분업의 기술적 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3.4. 『國富論』의 學說史的 意味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해 『國富論』에서 전개된 스미스의 經濟理論과 經濟思想이 지닌 이론적, 철학적 애매모호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러한 애매모호성의 밑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이론적 긴장이 내재한다. 첫째는 방법론적, 철학적 관점에서 본 개인주의와 총체주의간의 긴장이고, 둘째는 근대과학의 實證主義的 경향과 (형이상학적, 윤리적 혹은 가치규범적 성향을 지닌) 철학적 사교체계가 지닌 非實證主義的 경향간의 갈등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위의 두 이론적 긴장(즉, 네 가지 이론적 경향의 공존)은 이상주의와 경제주의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사상간에 존재하는 근본적 차이점을 극소화시키면서, 스미스 政治經濟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난관을 큰 무리없이 이해하고 따라서 內的 整合性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 정치경제학과 경제사상에 내재하는 이러한 긴장과 난관은 한편으로는 스미스 정치경제학이 오히려 經濟主義과 불리우는 순진한 경제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과 도덕철학 사이에 존재한다고 흔히 말하여지는 ‘상상적’ 斷切이 실질적으로는 완결되지 않도록 해주었다. 즉, 스미스 經濟思想의 이러한 애매모호성 덕분으로, 한편으로는 실증주의적 경제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實證主義的 現代經濟學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 스미스의 『國富論』으로부터 언제나 재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속할 수 있었다.⁽²¹⁾

4. 經濟學과 經濟思想의 關係에 관하여

이 글을 마무리짓기 위해, 이제 아래와 같은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古典學派

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歷史科學은 근대적 이상주의, 즉 역사에 대한 이상주의적 哲學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복지국가 개념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아베와 같은 『道德感情論』의 구절을 보라. “시민사회의 법규정란은, 단지 불법을 제어함으로써 공공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질서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악과 부정정성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위임받는다. 그러므로 시민들간의 상호집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상호간의 선함과 도움을 장려하는 규율을 제정할 수도 있다”(『道德感情論』 II, ii. 1. 8).

(21) 다음과 같은 명제도 여기에 덧붙여 제시해 두자. 『國富論』에서, ‘총체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이론적 부분만이 고립학과 정치경제학에 의해 뒷받치고 발전되어 왔다. 이는 별

政治經濟學과 근대경제학이 경제에 대한 실증과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다름아니라, 한편으로는 경제주의라고 불리우는 근대경제사상의 科學的 理論化의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주의와 경제주의 사이에 동요하는 스미스의 경제사상이 지닌 불투명성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이론의 발전과정 속에서, 자연법칙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는 ‘經濟法則’과 ‘순수한 經濟的 合理性’이라는 개념이 인간에 대한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관념뿐만 아니라, 개인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비논증적인 은유를 대체하게 된다. 즉, 철학적 경제주의는 실증주의적이고 단순한 ‘科學主義’로 전환되는 바, 이러한 과학주의는 이제 개인들의 행위와 사회적 사건들을 (가치판단과 구분되는 사실의 과학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自然現象으로 파악하게 된다. 나아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현상으로 인식된 사회의 경제현상을 지칭하는 ‘경제적인 것’이란 용어는 이상주의에 의해 수단으로 파악된 ‘경제적인 것’이란 용어뿐만 아니라, 근대경제사상의 제 1세대에 의해 인간의 고유한 사회행위로 파악된 ‘經濟’란 용어 역시 내치, 폐기하고 만다.⁽²²⁾

하지만 현대의 몇몇 비평가들이 이미 잘 보여준 바와 같이,⁽²³⁾ 근대경제학의 일견 단순명쾌해 보이는 이론적 기초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 속에는 여전히 철학적, 理論的 不透明성이 온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가, ‘사회정의’라든가 하는 개념은 近代經濟學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이론적 盲點으로 남아 있으며, 가치론에 관련한 여러 가정들은 그 복잡한 성질을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 정화의 밑에 숨어 있는 이러한 ‘哲學的’ 애매모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²⁴⁾ 이제 우리는 ‘實證主義的’ 경향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현대경제학의 이론적, 제도적 틀을 깨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경제학의 역사를 경제행위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경제적인 것에 대한 정상과학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제학설사의 일반적인 견해를 비판할 것을 요구한다

할 것도 없이, 아담 스미스의 근대적 경제사상 속에 담겨있던 ‘個人主義的’이고 ‘哲學的’인 측면의 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아, 아담 스미스의 정치경제학 이론에 대한 ‘총체주의적’ 해석만이 지금까지 『國富論』의 이론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인관된’ 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Benetti(1981) 참조].

- (22) 경제학의 두 극단적인 경향이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경제사상으로부터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먼저, 일부 맑시스트들에 의해 인정된 정치경제학적 史的唯物論이 플라톤의 이상주의의 근대적 현대인 것 같다(여기에서, 독일 이상주의와 프랑스-스코틀랜드 사적유물론의 맑스주의에의 영향은 지적해 두자) 둘째, 개인주의적 경향을 띤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경제(학)적 제국주의’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내선의 의미에서의) 經濟主義로부터 전개되어 온 것 같다.
- (23) 과묵한 탓으로, 필자는 여기에서 다만 A. Berthoud와 J-P. Dupuy라는 두 프랑스 저자만을 들 수 있을 뿐이다
- (24) 이러한 哲學的 애매모호성으로 인하여, 제반 사회과학은 디워의식 내지는 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수집을 일생으로 진지하고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다.⁽²⁵⁾

137-049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 Apt. 18 209

전화 : (02)537-9402

參 考 文 獻

- 金秀行 譯 (1992) : 『國富論』 上, 下, 서울, 동아출판사.
- Anderson, G.M. (1989) : "The Butcher, the Baker, and the Policy-maker: Adam Smith on Public Choice," with a reply by G. Stigler,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21. 4, 641~660.
- Arrow, K.J., and F.H. Hahn (1971) : *General Competitive Analysis*, San Francisco, Oliver and Boyd.
- Benetti, C. (1981) : "La question de la gravitation des prix de marché dans *La Richesse des Nations*," *Cahiers d'Economie Politique*, 6, 9~31.
- Cropsey, J. (1957) : *Polity and Economy: An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s of Adam Smith*, The Hague, Martinus Nijhoff.
- Dumont, L. (1976) : *Homo Aequalis. Genèse et épanouissement de l'idéologie économique*, Paris, Gallimard.
- Giddens, A. (1971) :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An Analysis of the Writings of Marx, Durkheim and Max Webe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Marshall, A (1920) :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 Rosenberg, N. (1965) : "Adam Smith on the Division of Labour: Two Views or One," *Economica*, 32, 127~139.
- Smith, Adam (1759) :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s. by A.L. Macfie and D.D. Raphael(1981), Indianapolis, Liberty Press.
- _____ (1776)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s. by R.H. Campbell and A.S. Skinner(1982), Indianapolis, Liberty Press
- _____ :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ed. by W.P.D. Wightman(1982), Indianapolis, Liberty Press.
- _____ :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ed. by J.C. Bryce(1985), Indianapolis, Liberty Press.
- _____ : *Lectures on Jurisprudence*, eds. by R.L. Meek, D.D. Raphael, and P.G. Stein, Indianapolis, Liberty Press.
- Stigler, G.J. (1975) : "Smith's Travels on the Ship of State," in A.S. Skinner and T.H.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Oxford, Oxford Univ Press.
- West, E.G. (1964) : "Adam Smith's Two Views on the Division of Labour," *Economica*, 31, 23~32.

(25) 예를 들어 Marshall(1920, 지분)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라, "경제학은 완만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이론의 과학이고, 또한 그러한 과학이어야 한다."